힐러리 방한…北 미사일 고강도 압박 촉각

오늘 외교장관 회담…對北 경고 메시지 수위 관심

한·미 FTA, 북핵 관련 발언도 폭발력 가질 듯

19일 밤 한국에 도착한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20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 예방 및 오찬, 국무총리 예방 등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 기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내놓는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북한문제＝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발사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이 한목소리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받게될 제재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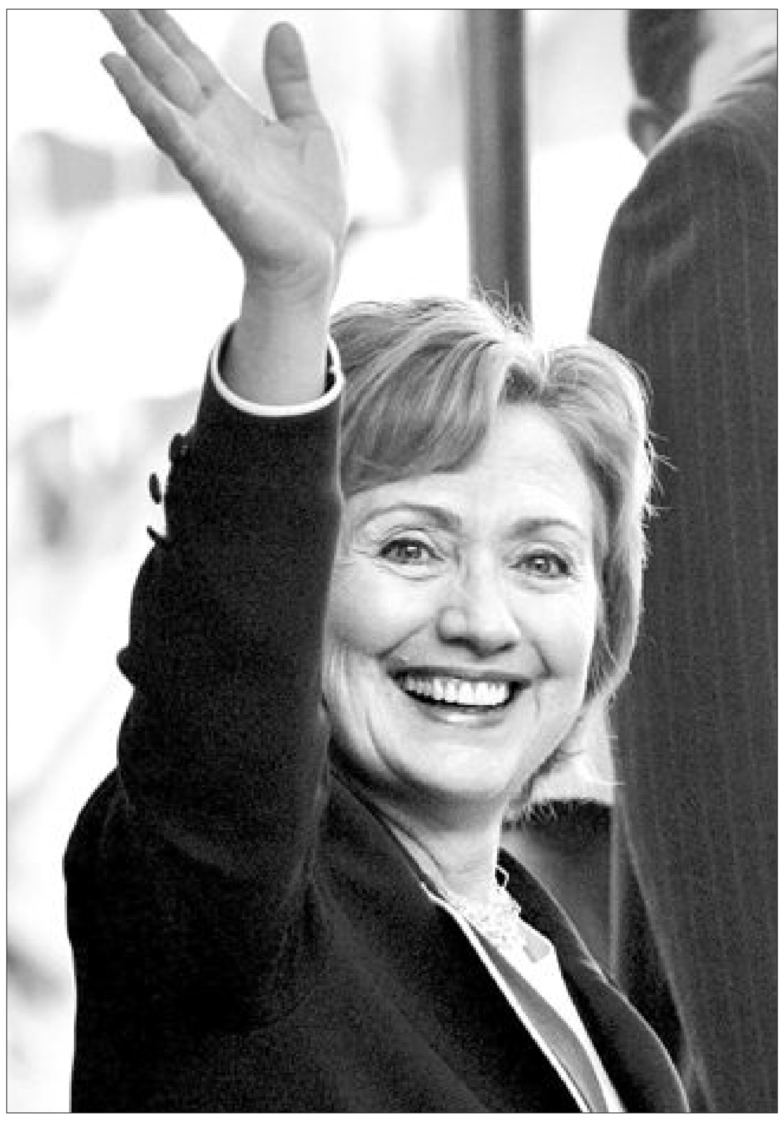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오바마 정부가 제시했던 '6자회담과 북·미 양자회담의 병행' 전략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클린턴 장관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어 HEU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 한·미 FTA＝한·미 간 가장 민감한 사항 중 하나인 FTA비준문제에 대한 클린턴 장관의 발언도 상당한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장관은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사실상 재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왔다.

지난달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는 "서비스와 기술분야 등 일부 유리한 내용이 있지만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는 공정한 무역조건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으며 쇠고기 수출에서도 우려할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 협정을 비준하면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지렛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용'의 성격이 있고 장관으로 정식 임명되기 전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클린턴 장관이 한국 방문기간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한다면 그 의미는 훨씬 크다는 분석이다.



힐러리, 본사 박진현 논설위원 등 여성리더와 대화

오늘 오후 이화여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20일 국내 여성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학생등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힐러리장관은 이날 이화여대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한나라당의 나경원·조윤선·이혜훈·정미경 의원과 민주당의 김유정·전현희 의원,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 등 7명의 여성정치인을 만난다.

이 자리에는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서현진 성신여대 교수, 김빛나래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인사 3명과 김미형 금호아시아나그룹 부사장도 동석한다. 힐러리 장관은 또 광주일보 박진현 논설위원등 국내 여성 언론인들과도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이중 특히 클린턴 장관과 웨슬리 대학 동문이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의 주역이었던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친동생인 김미형 아시아나 부사장과 변호사 시절 주한미군범죄 근절에 앞장섰던 대표적 반미운동가 출신인 이정희 의원은 눈길을 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이화여대에서 클린턴 장관의 강연을 학생들과 함께 들을 예정이다.

한편, 미측이 클린턴 장관과 만날 국내 여성 지도자들의 인원을 제한한데다 막상 초청을 원하는 몇몇 인사는 다른 일정상의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해 주한 미대사관이 참석 인사를 선정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힐러리 '명예 이화인' 된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명예 이화인'이 된다.

이화여대(총장 이배용)는 20일 오후 본교 대강당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는 클린턴 장관을 '명예 이화인'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대 측은 클린턴 장관이 최초의 미국 민주당 여성 대권 주자로서 여성의 정치참여 역사에 새 장을 열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수호에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해 '명예 이화인'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러 해군, 中 화물선 격침

러시아 나홋카항 해역에서 지난 14일 중국 화물선이 러시아 해군 군함의 공격을 받고 침몰해 선원 7명이 실종됐다.

중국 신문들은 19일 중국 화물선 '신싱(新星)호'가 러시아 변방 해안경비대 군함이 500여차례 발사한 총포사격을 받고 침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중국 화물선 침몰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성명은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0명 가운데 3명은 구조됐으나 나머지 7명은 실종된 상태라면서 선원들 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고 원인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달 초 밀수 혐의로 신싱호를 나홋카항에서 가압류했으나 신싱호는 지난 12일 허가도 받지 않고 몰래 도주해 추격을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신싱호 침몰 사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우리는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및 구조작업을 계속하고 사건의 원인을 하루빨리 규명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정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입후보

北 후계작업 본격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정운(26)이 다음달 8일 실시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은 19일 "김정운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후보로 등록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권력 승계작업이 본격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정운의 후계자 내정은 다음달 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후 공식화될 것"이며 "그는 4월 인민대회에서 당과 군의 주요 직책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6자회담 동력될까" 러, 동북아 안보회의 개막

'2·13 합의'의 산물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5개 실무그룹 회의 중 하나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가 19일 오전 (현지시간) 의장국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시작됐다.

지난 2007년 3월 베이징, 같은 해 8월 모스크바 회의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실무그룹 회의에는 북핵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이 모두 참석, 6자 회담 틀 속에서 역내 다자안보 문제와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 기본 원칙에 대한 협의를 벌이게 된다.

러시아 외무부 영빈관에서 열리는 첫날 회의에서는 양자 회담과 함께 실무그룹 대표단 전체가 참석하는 총회가 오후 5시까지 열리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외무부 본부 회의실에서 오후 2시까지 전날 논의됐던 내용을 최종 점검하게 된다. /연합뉴스